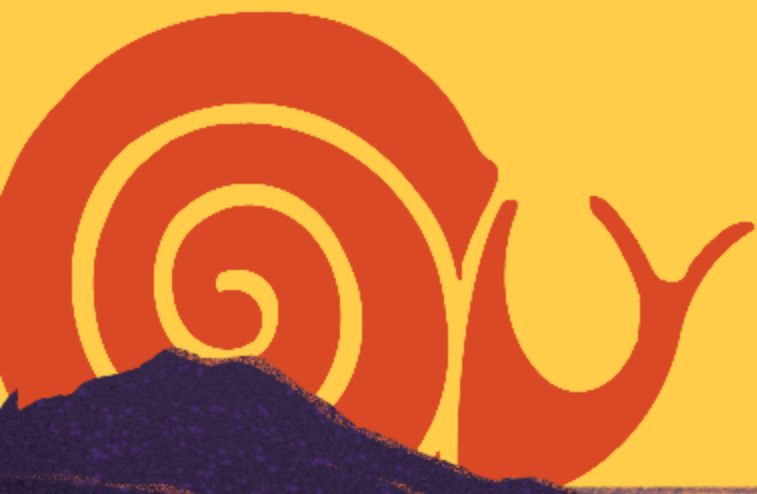


Slow Food

2024.01

새해는
더 많이
행복하세요



종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slow food

LETTER | COLUMN | REPORT | ARK OF TASTE | PEOPLE | CONVIVIUM



슬로푸드 소식을 모아 전하는 '슬로푸드' 섹션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슬로매거진달팽이」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운동의 현장은 물론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하게 담습니다. 매달 다양한 슬로푸드 뉴스, 인물 인터뷰, 활동 내용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새롭게 합류한 필진의 글과 2023년 12월 9일에 열렸던 '슬로푸드 회원의 날' 현장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www.slowfood.or.kr 문의 02-737-1665



“Happy New Slow Food Year”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회원님들 소망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을 생각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의 각오를 다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해 결의에 차서 계획을 세웠으나 그저 계획으로 끝나버린 일들을 떠올리며 새해를 맞아 다시금 실천 의지를 다집니다. ‘새해’는 오늘과 내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다르지 않은 일상의 연속에 새로운 선을 긋고, 관성대로 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며, 느슨해진 신발 끈처럼 늘어진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의 ‘마침표’와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작년과 다른 올해를 위해 가장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각오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인 듯합니다.

지난해 슬로푸드에서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실행에 옮겨 이룬 계획도 있고 미처 진행하지 못해 숙제로 남은 일도 더러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협회의 새로운 한 해 출발은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활동을 나누고 마감하는 동시에, 올 한 해 새로운 계획을 확정해야 비로소 새해를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1월은 지난해를 잘 정리하고 결산해 새해 활동을 새롭게 설계하는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지난해 의미 있고 잘 진행된 「슬로매거진달팽이」와 지부 활동,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 등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진행하지 못했던 슬로푸드 교육과 맛의방주 등재는 올해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가오는 9월, 국제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테라마드레 행사는 무척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1년을 미리 살아보는 것처럼 느껴져 생각만으로도 벅겁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 모두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낸 결과이고, 시간의 발자취가 쌓여서 또 한 해의 길을 만들어가기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엄청난 퇴보와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먹거리와 농업 분야는 무척 심각했습니다. 올 한 해 슬로푸드운동이 확산해 먹거리뿐만 아니라 슬로라이프 삶을 확장하길, 그래서 좀 더 평화적이고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사회가 마음을 모으길 바랍니다. 가진 자들의 욕망을 위한 개발보다 모두가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먹거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더 많은 시민과 회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힘차게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장항연이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힘차게 달려갈 2024년을 위하여

글 김종덕(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사진 최영미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청룡이 비상하듯 한국 슬로푸드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슬로푸드운동은 모든 사람이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먹기를 지향합니다. 요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슬로푸드운동은 식량권에 따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며, 국가가 이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하도록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는 음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슬로푸드운동은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가치를 실천하는 가치 운동입니다. 슬로푸드운동이 널리 퍼지고 내실화하려면, 슬로푸드운동이 지향하는 실천과 관련한 슬로푸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슬로푸드 활동가, 슬로푸드 회원, 슬로푸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슬로푸드운동의 필요성과 사명, 슬로푸드운동의 지향과 활동을 알리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슬로푸드운동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그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를 위해 슬로푸드 생물다양성 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핵심 프로젝트는 '맛의방주'입니다. 전 세계 160개 국



가에서 ‘맛의방주’에 등재된 품목은 2023년 11월 기준 6200여 개이고, 우리나라는 111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많은 품종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맛의방주에 좀 더 많이 등재했어야 하지만, 여건상 등재가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맛의방주 등재 품목을 발굴하고, 등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맛의방주에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등재된 111개 품종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세계 슬로푸드운동을 이끄는 슬로푸드국제협회는 슬로푸드운동의 대중화와 확산과 관련해 지부에 이어 공동체를 중시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좋고 깨끗한 먹을거리의 생산 현장인 슬로푸드 농장을 지정해 슬로푸드운동의 외연을 넓힐 계획입니다. 슬로푸드 농장을 인증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 회원과 함께 슬로푸드운동을 하겠습니다.

슬로푸드운동은 초창기부터 조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먹을거리 공동체의 복원에 조리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자, 맛의방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조리사 동맹이 출범했고, 2023년 11월 기준 전 세계에 1260개의 슬로푸드 조리사 동맹이 활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슬로푸드 조리사 동맹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운동이 관심을 가져왔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 슬로푸드 여행입니다. 근래 국내외 슬로푸드 여행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협회가 펼쳐온 ‘차 마시는 사회’,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이 좀 더 효과를 내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하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2024년 한국 슬로푸드운동이 나아갈 방향 이외에도 슬로푸드 회원수가 늘어나고, 지부와 공동체 창립이 더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슬로푸드운동에 더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기존 지부들의 역할은 물론, 슬로푸드 회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슬로푸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주 이번 호부터는 협회 회원이 돌아가면서 칼럼을 이어 쓰기 합니다. 필진의 개성과 생각이 담긴 글로 다양한 관점에서 슬로푸드 철학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기를 바라며, 협회 김종덕 회장의 글로 신년 호를 엽니다.



SLOW FISH

식품업체의 반도체 격인 ‘김’으로 들여다본 우리 바다 해조류, 열대우림보다 더 많은 탄소 흡수

2023년 말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넘어섰다. 단일식품으로는 라면, 인삼보다 높은 수출액이다.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고도 한다. 우리 수산물 중 가장 주목받는 품목이다.

과거에는 일본으로만 수출했지만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지역에도 수출한다. 전남이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며, 김 수출량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많다. 밥반찬 정도로 생각했던 김이 건강식품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다.

‘맛의방주’에 등재된 전통 김양식 방식인 ‘지주식 김’과 우리나라 대표 김 생산지를 돌아보며 바다에 대해 생각해본다.

글·사진 김준(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 슬로피시운동본부장)

해조류 성장은 온실가스 제거에 탁월

몇 년 전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지구 관측 위성 ‘랜드샷’에 촬영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소개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NASA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얇은 바다는 다시마, 김, 미역을 기르는 데 이상적이며, 해조류 양식은 담수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산업’이라 언급했다. 무엇보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제거한다’고 해석했다. 어디 완도뿐이겠는가. 고흥, 해남, 진도 등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이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연구진은 최근 우리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연간 26만 톤, 최대 4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밝혔다. 연안습지는 국제적으로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주목받고 양식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위협요인도 존재

한다. 가장 큰 위협요인은 기후변화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기온이 지금처럼 따뜻하면 김 양식을 지속할 수 없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양식장에서 일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도 문제다.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지만, 지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변수로 발생했다. 이 모든 요인은 개인 어가가 노력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때로는 외교로, 때로는 법과 제도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 활성화는 단순히 어촌뉴딜이나 어촌신활력 같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촌은 바다와 갯벌이 건강하고 그 가치가 커져야 재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구를 살리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 데 어울리는 김 양식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김 양식장은 김 채취만이 아니라 블루카본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김준 박사는... 한국 슬로피시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섬진흥원 이사이자 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다. 어촌사회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속 가능한 어촌과 어업, 주민이 행복한 섬마을과 지속 가능한 섬살이에 관심이 많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섬, 어촌, 갯벌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다 퇴직했다. 지금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수행하며 섬과 갯벌을 답사한다. 쓴 책으로 『섬살이』 『섬문화답사기』 시리즈, 『어촌사회학』 『바다맛기행』 시리즈, 『어떤 소금을 먹을까』 『물고기가 왜?』 『바닷마을인문학』 『바다인문학』 『섬살이섬밥상』 등이 있다.



고창 만들 지주식 김 양식장

맛의 방주에서 지정한 지주식 김

김 양식은 지주식, 부류식, 세트식 등으로 구분한다. 맛의방주에 지정된 지주식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 대나무나 기둥을 박고 김발을 묶어서 양식하는 방법이다. 서해와 남해 연안이나 섬 주변 갯벌이 발달한 곳에서 많이 사용한다. 서천, 신안, 무안, 완도, 응진 지역에 발달했다. 부류식과 세트식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김발을 매달아 양식한다. 세트식은 바다에 대형 사각 틀을 만들어 고정해두고 김발을 걸어 양식하는 방법이다. 부산의 명지김, 전남의 고흥김, 진도김, 전북의 고군산김 등 대규모 김 양식장에서 볼 수 있다. 부류식이나 세트식으로 양식한 김은 대부분 김밥용이다.



신안 지주식 김 양식장



고흥 김 양식장

김 양식의 본고장 고흥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김 양식 면적은 6만3000 헥타르였다. 이 중 전남은 5만8000여 헥타르로 양식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흥 지역 김 양식 면적은 약 1만 헥타르다. 고흥 김 양식은 부류식 중에서도 세트식으로 대규모 양식 기술을 선택했다. 고흥 구암마을 한 어민은 1000여 줄의 김 양식장을 베트남 이주노동자 4명을 고용해 운영한다. 고흥에서 생산된 물김은 우리나라 김밥용 김의 80% 이상을 공급한다. 최근 우리나라 김 수출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이 큰 인기를 끌어 불고기나 비빔밥을 앞서고 있다.●



고흥 부류식 김 양식장



전 세계 ‘슬로푸드 테라마드레데이’와 함께한 ‘2023 슬로푸드한국협회 회원 만남의 날’ 리포트

12월 9일, 전 세계 ‘테라마드레데이(Terra Madre Day)’를 하루 앞두고 서울 두레생협연합회 회의실에서 ‘2023 슬로푸드한국협회 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온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슬로푸드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협회 강남지부는 좋고 깨끗한 식재료에 정성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고, 생산자 회원들은 귀중한 물품을 아낌없이 보내 후원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던 개인 수저와 식기 준비가 당연해지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식사 문화가 자리 잡았다.

글 고지현(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협회 회원 제공



1 만남의 날 참가한 회원들 단체 사진 2 제2회 김병수상을 수상한 최영미 회원과 김종덕 협회장, 김혜란 정책위원장. 김병수상은 1차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투표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명 중 정책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3 재치 있는 말과 낭랑한 음성으로 행사를 진행한 소혜순 남양주지부장



Part 01

테라마드레데이, 땅(Terra)을 섬기고 어머니(Madre)의 마음의 되새기는 날

팬데믹 기간을 제하고 되도록 매해 진행해온 ‘슬로푸드한국협회 회원 만남의 날’은 다양한 슬로푸드 행사 중에서도 재밌고 의미 있기로 소문났다. 때론 마켓 형태였고, 때론 콘퍼런스와 워크숍을 겸한 공부의 장이었다. 어떤 형태든 늘 빠지지 않는 시간은 전국 회원들이 앞다투어 기부해준 식재료를 가지고 회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나누는 음식 나눔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식재료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날이라 기대하는 이가 많다. ‘대지 어머니의 날’이라는 의미인 ‘테라마드레데이’의 의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열린 ‘슬로푸드 회원 만남의 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짝 찬 일정으로 치러졌다. 맛워크숍, 울릉도 식재료와 토종 씨앗 전시, 꽃차 나눔 등의 부스가 앞서 본식 분위기를 돋웠다.

이날 울릉지부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온 지부 회원들은 개별 전시 부스도 운영하고 행사를 축하하는 합창 공연도 펼쳤다. 우리나라에서 111번째로 슬로푸드 ‘맛의방주’에 등재된 ‘뽕명이’ 등재 인증서도 받았다. 지난해부터 슬로푸드국제협회에서 ‘슬로푸드 영웅’ 칭호를 받은 김병수 선생을 기리는 ‘김병수상’ 시상도 했다. 제2회 김병수상 수상자의 영예는 최영미 회원에게 돌아갔다. 그는 2013년에 슬로푸드 회원이 되었고, 슬로푸드를 알리는 공간인 ‘슬로카페달팽이’를 열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매달 슬로푸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슬로&에코 콘텐츠를 담은 잡지「슬로매거진달팽이」를 발행하고 있다. 비용부터 제작 과정까지 혼자 힘으로 감당하며 슬로푸드 철학을 알리는 것. 최영미 대표는 김병수상 수상 소감에서 “수상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취지로 꽤 무거운 소감을 재치 있게 말했다. 슬로푸드 콘텐츠의 발굴과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슬로매거진달팽이」가 계속 이어지도록 협회 회원들의 응원과 후원이 절실하다.

이날 참석한 회원 모두가 VIP였다. 울릉도 흥감자를 이용해 워크숍을 진행한 김혜영 조리사 동맹 준비위원장과 정진영 셰프, 꽃차를 준비해준 양주지부, 쌀로 만든 수제 맥주를 들고 와 시음을 진행한 ‘농담브루어리’ 권용인 대표, 향긋한 빵소의 향연을 펼친 ‘차나무빵소’의 심미자 회원,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사례를 발표한 ‘찬우물농장’ 이상린 회원, 멋진 노래로 흥을 돋워준 양주지부 최정희 회원, 바리톤 석상근 회원, 소프라노 김아라 님, 음식 준비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 강남지부 회원들... 그밖에 빈손으로 온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나눠준 참가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111번째 맛의방주에 오른 울릉도 ‘뽕명이’ 인증서를 받은 한귀숙 울릉지부장, 최효정 울릉군청 울릉농업기술센터팀장, 김종덕 협회 회장 220여 명으로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울릉지부 3이진의 부회장. 2022년도 김병수상을 받은 그녀는 음식 조리에 한결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200% 힘을 발휘해서 회원들을 섬겼다. 4 멋진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두레생협연합회 김영향 회장 5 유기 순환 농법을 설명하는 이상린 회원 6 구성진 가요를 들려준 양주지부 최정희 회원





Part 02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슬로푸드 회원 만남의 날' 현장

사진으로 분위기를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11시 시작인데도 10시 이전부터 준비팀은 물론 여러 회원이 도착해 이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서로 알고 있는 회원들 간의 반가운 인사도, 처음 보는 회원 간의 소개와 인사도 계속되었다. 일찍부터 시작된 맛워크숍은 자리가 빼곡히 들어찼고, 울릉지부의 식재료와 토종 씨앗 전시 공간도 북적였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주방에서는 미리 조리해온 음식을 담고, 또 새로 조리하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맛있고 다채로운 음식들이 차려지고 식전, 식후 행사가 치러졌다. 모두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 모두 귀하고 의미 있는 회원 소개와 사례발표 등의 시간, 사진으로나마 그날의 분위기를 만나보자.



1 회원과 협회를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김현숙 국장 **2** 바리톤 석상근과 소프라노 김아라의 멋진 듀엣 **3** 맛워크숍을 준비한 김혜영 셰프와 제주도에서 올라온 정진영 셰프 **4** 2023년부터 협회 홍보팀장을 맡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슬로푸드운동을 펼치는 고지현 회원 **5** 협회 신입 회원들, 지부가 아닌 개인 회원으로 참여한 만큼 관심과 열성이 대단한 이들이다. **6** 농담 브루어리 권영인 회원이 쌀로 만든 수제 맥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7** 점심 식사로 준비된 슬로푸드 반찬들 **8** 약밥, 과일, 약과, 요구르트, 식혜 등의 후식 **9** 파주지부에서 전시한 토종 곡물과 토종 씨앗





- 1 아무진 음식 솜씨와 따스한 마음을 지닌 강남지부 회원들
- 2 토종 씨앗을 전시한 파주지부 회원들
- 3 고양지부 회원들. 최은영 고양지부장은 붉은색 원피스를 입어 베스트 드레서에 뽑혔다.
- 4 손정희 지부장과 내포지부 회원들
- 5 오묘한 색과 향의 꽃차를 준비한 양주지부 회원들
- 6 수원지부 회원들, 유성경 지부장의 아들 이등건 군은 현재 중학교 2학년으로 이날 참석한 회원들의 평균 연령을 낮춰줬다.
- 7 울릉지부에서 전시한 울릉도 맛의방주 등재 품목
- 8 알싸한 맛이 일품인 여수 최후경 회원의 돌산갯김치
- 9,10 임영혜 회원이 집에서 만든 툇밥과 국수 요리

Part 03

전국에서 온 슬로푸드 후원 물품을 소개합니다!

사진에 나오지 않았어도 이날 모인 후원 물품은 목록으로 정리했다. 행사 일주일 전부터 후원 물품이 안국동 협회 사무실로 속속 도착했다. 안도에서 올라온 톳은 아주 커다란 봉지에 뭉터기로 들어 있었는데 김춘교 회원이 사무실에 와서 소분하는 데 일손을 보탤다. 눈대중으로 한 줍씩 통에 넣었는데, 정확하게 통갯수와 맞아 떨어졌다. 회원들이 손수 들고 온 것도 많았다. 각별한 마음이 아니면 뭔가를 챙겨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후원 물품은 마음이자 정성이다. 그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목록으로, 또는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



▲ 한창본 지부장은 사고로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날 행사에 고대미 시루떡을 보냈다. 이 떡을 먹기 위해서라도 모임에 왔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특별한 맛이다.

- 01 한창본(장흥) 고대미시루떡 한말, 오종맛춍쌀 (암환자 전용 쌀) 1킬로 20개(식탁차림용)
- 02 강대욱(거창) 현대미농장 부사사과 10킬로 3박스(식탁차림용)
- 03 박정록 시드컴퍼니 언니네(영주) 야생화꿀과 아카시아꿀 10세트
- 04 김주연(부안) 행복한부엌 오란다강정 들깨강정 쌀강정 200개
- 05 금경연(화성) 단호박 2박스(식탁차림용)
- 06 한해광(여수) 마른 톳 5kg 이상 담을 용기 100
- 07 생태미식연구소(여주, 남윤미) 토종콩 딱딱이 두부 2판(식탁차림용)
- 08 함정희(전주) 쥐눈이콩마늘청국장완 200g 5개, 콩물 20개
- 09 배영혜(화성) 유기농 식혜 1L 30개
- 10 최후경(여수) 돌산갯김치 5kg, 홍갯, 청갯(식탁차림용)
- 11 심미자(용인) 차나무뽕쇼 눈알코올 와인 5병
- 12 주연섭(문경) 논지엠 유가공 풀우유와 요구르트 각각 2박스씩 (총 4박스, 박스당 72개)
- 13 김영란(신안) 비금도함초여인 함초소금 300g 10개
- 14 장영춘(서울) 화초 성장 촉진 돌가루 100포
- 15 장유성(부산) 8년 숙성 우리콩 한식간장 900mL 3병
- 16 최돈익(서울) 산양산삼주 3병
- 17 서형숙(서울) 양초 3점
- 18 임영숙(군산) 울외장아찌 4kg
- 19 임상채(파주) 평화마을양조장 임진강쌀막걸리 650mL 20병(식탁차림용)
- 20 오연숙(제주) 자연친구생태텃밭 자연농업꿀 20kg(식탁차림용)
- 21 서상덕(보성) 메주익는마을 생기 가득한 청국장 230g 20개
- 22 송지은(양주) 제주 유기농꿀 15kg 5박스(식탁차림용)



◀ 환경선물로 마련한 여수 안도 톳, 우리밀 국수, 논지엠 우유와 요구르트, 화초 성장 촉진 돌가루



▲ 양주지부가 준비한 꽃차 시음



▲ 유성경 수원지부장이 후원한 홍삼 양갱



▲ 박동근 회원은 목침 10개를 기증했다. 요즘 가정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라 목침을 선물로 받은 회원의 가족들이 더 좋아했다고 한다.



▲ 최영미 회원이 발행하는 잡지 슬로매거진달팽이를 후원했다.

- 23 손정희(홍성) 고구마호두볼, 고구마, 톳밥, 단무지무침(식탁차림용)
- 24 정영숙(보령) 유기농 말린 구기자 100g 10개
- 25 슬로푸드화성지부 유기농 배즙 1박스
- 26 정인숙(여수) 고대미약밥 50개, 단호박식혜 100포(식탁차림용)
- 27 장미향(포천) 하네뜨요거트 150mL 100개(식탁차림용)
- 28 오영상(옛지해남) 국내산 바나나발사믹식초 200mL 5병
- 29 최은영(고양) 무차 10개, 접시 10개
- 30 현은주(남양주) 로인햄 5kg(식탁차림용)
- 31 민경아(서울) 허니아씨 국내 유일 특허받은 꿀(2004년) 되새김꿀 2병
- 32 박동근(서울) 목침 10개
- 33 권용인(홍천) 농담맥주학교 수제맥주 시음 행사 진행
- 34 강정미(안산) 해뜨는대부도 고랫부리 대부도 포도즙 1박스
- 35 유귀숙(서울) 팍물 100개(식탁차림용)
- 36 이다감(포천) 비건쿠키
- 37 차해리(여수) 옥수수막걸리 20병(식탁차림용)
- 38 최용범(구례) 우리밀 국수
- 39 민형기(서울) 청미래 통곡물 8통
- 40 김인숙(서울) 고급 꿀떡 50개(식탁차림용)
- 41 우석영(서울) 도서 『기후위기 행동사전』 10권
- 42 김종애(문경) 오미로제 증류주 4병
- 43 최영미(서울) 「슬로매거진달팽이」 100권
- 44 정점숙(남양주) 약과, 김치 등(식탁차림용)
- 45 장현예(협회 상임이사) 파김치, 무나물 등(식탁차림용)
- 46 협회 톳장아찌(식탁차림용)
- 47 고옥희(파주) 파주나물(식탁차림용)
- 48 박세정(서울) 우영잡채(식탁차림용)
- 49 유성경(수원) 수삼차 시음 및 수삼양갱
- 50 박정록(영주) 나물무침(식탁차림용)
- 51 이원영(도담) 복숭아 병조림(식탁차림용)
- 52 이진희(서울) 단호박수프
- 53 임영혜(서울) 파이
- 54 울릉지부 시식용 뽕명이장아찌와 뽕명이김치, 물엿경귀 건나물 등
- 55 정희정(목포) 후원금
- 56 파주지부 토종 씨앗 전시 부스
- 57 홍순창(안동) 화개 제다 시음
- 58 양주지부, 꽃차 시음



발효주 전시 및 판매장에서 뱅쇼를 알리는 모습

쌀누룩으로 한국식 뱅쇼 만드는 심미자 회원
“세계가 인정한 K푸드,
이젠 K뱅쇼에 주목해주세요”

‘슬로푸드 회원 만남의 날’에서 만난 ‘차나무뱅쇼’ 심미자 회원을 소개한다.
심미자 회원의 뱅쇼를 직접 맛보며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인터뷰 고지현(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심미자 회원 제공



차나무뱅쇼의 다양한 제품들

Q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주세요.

A 쌀누룩을 이용해 끓이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 발효 뱁쇼, 숙성 뱁쇼, 탄산 뱁쇼를 에버랜드 부근의 작은 공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공황장애, 우울증약을 먹게 되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약에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아 단식으로 건강을 회복한 후 발효음식으로 몸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 일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 잘 다니던 회계법인을 퇴사하고, 나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발효음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슬로푸드협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중소벤처포럼 모임에서 유성경 지부장을 만나면서예요. 아주 멋진 생각을 가진 협회라고 생각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슬로푸드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Q 브랜드 이름이 ‘차나무뱅쇼’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A 아이들이 어렸을 적 저는 생태안내자 봉사를 했었습니다. 용인 관내 ‘길토래비자연학교’에서 유치부 선생님이로 활동했는데 당시 꼬마들이 불러주던 이름이 ‘차나무’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자연이 주는 선물로 차를 우려 마시던 추억을 지금도 마음 한편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차나무쌈’이라는 이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Q 겨울을 보내면서 몸에 좋은 뱁쇼는 무엇인가요? 뱁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드시는데, 각각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A ‘차나무뱅쇼’는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는데, 크게 베이직 뱁쇼와 스

페셜 뱁쇼로 나뉩니다. 베이직뱁쇼 라인에는 행쇼뱁쇼, 코냑뱁쇼, 쌍화뱁쇼가 있습니다. 행쇼뱁쇼는 큰아들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이 뱁쇼 드시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술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먹기 좋은 뱁쇼예요. 헤네시를 섞은 코냑뱁쇼는 차나무뱅쇼 라인업 중 가장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애주가나 미식가에게 인기가 많아 매출 1위하는 뱁쇼입니다. 쌀누룩을 720시간 저온 발효해 우려낸 쌍화차를 섞은 쌍화뱁쇼는 건강한 입맛을 가진 분이 많이 찾습니다.

스페셜 뱁쇼 라인에는 무설탕뱁쇼, 갈근뱁쇼, 청폐뱁쇼, 십전뱁쇼, 복분자뱁쇼, 복숭아뱁쇼, 샤인머스캣뱁쇼, 오미자뱁쇼, 청굴뱁쇼, 청한라봉뱁쇼, 모과뱁쇼 등이 있습니다. 쌀누룩으로 잼을 만들어 건강한 단맛을 낸 무설탕뱁쇼는 당뇨 환자가 먹어도 좋으며, 청폐뱁쇼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 마시면 폐가 시원해지는 뱁쇼입니다.

저는 아이들 고모부님, 남편의 친구 등등 지인들이 농사짓는 과일로 청을 담그고 3년 동안 숙성한 후 재료로 사용합니다. 차나무뱅쇼는 한 잔의 음료라도 72시간 저온 발효한 베이스에 720시간 자연의 시간을 더해 마음을 담아 만듭니다. 와인의 폴리페놀 성분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허브를 넣어 제대로 잘 만든 차나무뱅쇼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



● 차나무뱅쇼 정보

쇼핑몰 smartstore.naver.com/happy_treetree



책으로 읽는 슬로푸드 ① 제인 구달 『희망의 밥상』
**제인 구달처럼 깊은 혜안과 방향성을
레시피에 담자**

글·사진 김용수(슬로푸드 전남 고창지부장)

편집자주 이번 호부터 슬로푸드와 관련된 책을 한 권씩 소개한다. 매일 슬로푸드를 실천하며 살려면 부지런한 몸과 생명을 담은 음식은 물론, 생각을 다잡을 지식과 철학도 필요하다. 문득 내가 제대로 사는지 궁금해질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막연할 때 슬로푸드 북 리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책을 추천해주는 김용수 회원은 현재 고창에 살면서 책 읽기, 어싱(맨발 걷기), 고창 지역 문화 해설 등에 힘쓰고 있다.

“생존을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는 수많은 소규모 자영 농민들, 특히 유기농법을 실천하고 거대 농산업 기업들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 그리고 패스트푸드 제국의 국민에게 건강한 식품을 다시 소개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노력하는 분들께...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수많은 농장의 동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 『희망의 밥상』 중(제인 구달 지음, 김은영 옮김, 최재천 추천)

밥상과 희망의 관계를 촘촘히 연결한 내용

이 헌사만으로 제인 구달이 ‘희망의 밥상’을 왜 쓰게 되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다. 제인 구달은 동물행동학의 권위자이자 저명한 환경운동가이다. 그의 명성은 익히 유명하지만 ‘희망의 밥상’을 읽다 보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밥상과 희망을 연결하면서 세상과 삶을 대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체념보다는 실천으로 환경위기를 대하도록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슬로푸드 회원이거나 환경, 식생활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먹방과 맛집이 넘쳐나고 간편식이 대세가 된 요즘 세태에 거부감을 느끼는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생각할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간과 돈이 없다는 자못 절박한 핑곗거리로 쉽게 후회당하는 현실에 누구나 노출돼 있다. 그렇지만 이제 체념의 이유를 대기보다는 좀 더 실천할 때다. 모두가 갈 곳 없는 절벽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통해 사피엔스가 된 인류, 음식을 남용하면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도...

사피엔스로 거듭난 인류의 궤적을 보면 음식 또는 조리가 우리가 우리 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리처드 랭엄의 『요리 본능』에서 보듯이 우리의 선조는 불을 발견하여 익힌 음식을 먹으면서 뇌가 발달했고 그 결과, 끝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펼쳐가는 사피엔스가 되었다. 자랑스러운 사피엔스는 음식의 결과물이라고 할만하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사피엔스도 존재 의미를 잃을 날이 곧 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정당한가?

제인 구달의 혜안을 레시피 삼아 희망의 밥상을 차리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자기 주인이다. 다시 말해 계속 쓰다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지구를 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지구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제인 구달의 깊은 혜안과 내 삶의 방향성을 레시피로 추운 겨울 따듯한 이불 속에서 ‘희망의 밥상’을 차려보자. ●

집 앞 텃밭에서 수확한 시래기와 무로 희망의 밥상을 차렸다.



신GMO 규제 완화? 유럽연합이 대체 왜 이럴까!

정리 고지현(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Ambitious Studio* - Rick Barrett

2023년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유럽 농수산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GMO 규제 완화를 찬성하겠다고 모인 거죠. 지난 11월에는 유럽 의회 대다수 국가가 살충제 사용을 줄이려는 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유럽의회가 그린 딜의 핵심인 살충제 사용 감소를 거부한 이유는 거대 농업의 로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슬로푸드협회 설립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는 이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탈리아 일간지 리퍼블리카에 의견서를 내고 모든 EU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페트리니의 글을 슬로푸드국제협회 홈페이지에서 옮겨왔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023년 7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입니다. 신GMO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표의 제안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식품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투명성과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얼마나 많은 점검과 서류 작업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전자 변형 식품에는 그것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한 위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문호를 열어줄까요?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GMO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빼앗아 시민의 민주적 선택을 훼손하는 이유는 무엇까요? 더욱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소수의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싸고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면 이 제안 뒤에는 여러 이권 집단의 음흉한 속내가 있습니다.

GMO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환경 측면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많은 과학단체에서 발암물질이라고 판명된 글리포세이트 사용 승인을 10년 더 연장하고 재배육 특허를 가진 소수 회사가 아무런 통제 없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려는 거죠. 이런 식이면 유럽연합의 선택은 뻔합니다. 식량 생산을 산업화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식량주권’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지역 식량 생산을 강력히 압박하는 산업계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 농업 공동체에서 등장했습니다. 식량주권 개념은 농민이 종자 구매에 얽매이지 않고 재배할 작물을 결정할 권리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가 어우러진 음식,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풍부한 식단을 보장하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식량 시스템의 복잡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을 존중하면서 씨앗의 기원과 식품의 근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솔루션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농생태학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미래를 향해 식량 생산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에서는 시민 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슬로푸드는 모든 EU 장관에게 신 GMO 규제 완화를 거부하라고 단호히 촉구합니다. ●

편집자주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사람과 지구의 번영, 자유와 보편적 평화에 합의한 국제적인 행동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세우고, 2021년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푸드시스템만 잘 정비해도 SDGs의 거의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농생태학이 SDGs 달성의 핵심 이유”인 근거를 더 읽어보고 싶다면 「슬로매거진달팽이」 57호(2023년 12월호)를 참고하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 회원 활동 소개

오늘도 우리는 슬로푸드

2024년 첫달의 달력을 들여다봅니다.

한 달은 삼십 일, 일년은 열두 달, 정리 상자처럼 나누어져 있는 시간의 틀, 연초에 계획하고 희망한 일로 칸마다 채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슬로푸드 실천을 위해 다 같이, 더 많이, 더 넓게 일하는 2024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해당 지부 회원들



김현기 작가의 '천국'을 설명하는 정상신 목사

1 전시 <아가서 정원II>

협회 회원 정상신 목사가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와 큐레이션 한 그림 전시회가 2023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태원 마크로비 학교에서 열렸다. 전시회의 부제는 '마을, 우리 정원이 되다'이다. 한국 화가 8명과 이탈리아 화가 2명의 그림이 걸린 이 전시회의 의미를 정상신 목사의 글로 대신한다.

"아가서 정원 작품 전시회를 계속 이어가려는 이유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정원'이라는 내용이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소중하고, 공감 소통하기에도 좋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업, 자연, 텃밭, 골목, 가게, 시장, 건물 등을 사랑스럽게 보며 가꾸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고 소외, 무관심, 이기주의 등을 극복하는 씨앗입니다."

2 강남지부 김장 체험 공모 행사

12월 6일 강남지부(지부장 이진희)가 중앙대 중국 유학생과 교환학생들에게 김장 체험 행사를 열었다. 직접 김치를 담가보고 집 밥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은 손수 김치를 버무리고 수육에 김치를 곁들여 먹으며 무척 즐거워했다. 장소를 제공한 흑석동 명수대 교회에 감사를 전한다.



김치 담그기 체험 중인 중국 학생들과 예비 회원들



3 제주지부 '슬로푸드 제주 오늘' 진행

슬로푸드 제주지부는 지난 12월 9일 제주 '맛의방주'를 주제로 한 음식 행사를 열었다. 슬로푸드 고은정 활동가가 제주 맛의방주 이야기를 풀어내고, 휴살림연구소 윤성희 소장이 '제주 토종 개발 시리조(맛의방주에 등재된 제주 토종 조 품종명)' 이야기를 풀어냈다.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 양용진 원장은 제주 맛의방주 등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냈다. 슬로푸드 제주는 우리나라 '맛의방주' 1호인 푸른콩장을 시작으로 20여 개의 등재 품목을 보유한 곳이다. 앞으로 더욱 소중한 제주의 맛 자원이 지켜지고 이어지기를 바란다.

4 슬로푸드 '여주'와 '담양'에 오다

지역별로 꾸릴 수 있는 슬로푸드 지부 개설 문의가 많다. 지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슬로푸드 OO에 오다'라는 이름으로 슬로푸드가 무엇인지, 슬로푸드 지부는 어떻게 만드는지 등을 설명하고, 회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다. 이것이 지주 설립의 실마리가 되어 지부 승인까지 이어지도록 서로 이끌고 밀어준다. 지난 12월에는 두 곳의 예비 지부인 여주와 담양에서 '슬로푸드 OO에 오다' 행사가 열렸다. 두 곳 모두 지부 승인까지 힘을 내길.



◎2023년 슬로푸드 회원의 날 후원해 주신 물품 판매처입니다.
 슬로푸드 회원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름 및 상호	연락처	판매품목
1	한창본 (장흥)	010-6262-6492	고대미 5종 토종쌀/잡곡쌀/ 암 환자 전용 맞춤 쌀
2	강대욱(거창)	010-4645-0637	거창 현대미 농장 사과
3	행복한부엌 김주연(부안)	010-9136-2659	수제 강정 주문 오란다/들깨/쌀 강정
4	금경연(화성)	010-9237-5293	만차란 단호박 생산
5	함씨네 두부 함정희(전주)	010-8669-8600	쥐눈이콩 마늘청국장 환/콩물/두부
6	배영혜(화성)	010-9985-2686	햇살깃든 유기농식혜 (일반.단호박.현미.꾸지뽕식혜)
7	최후경(여수)	010-6633-4172	돌산갓김치/홍갓/청갓/배추김치/ 쪽파김치
8	차나무 뱅쇼 심미자(용인)	010-2269-8107	고급 수제 논 알콜 와인
9	김영란(비금도)	010-9785-2859	함초소금/김/섬초/새우젓
10	장영춘(서울)	010-4789-5623	화초성장촉진 돌가루외
11	최돈익(서울)	010-5319-7090	산양 산삼주
12	임영숙(군산)	010-9042-2445	울외장아찌외 음식수업공방
13	임상채(파주)	010-8284-0634	평화마을양조장 임진강 쌀 막걸리
14	자연친구생태텃밭 밭오연숙(제주)	010-2604-5052	자연농굴 10k 35,000그 외 겨울 채 소 꾸러미 및 단품들 (콜라비, 당근, 비트, 브로콜리, 무, 감자 등)비트즙 1솔(비트 30k)
15	메주익는마을	010-4119-2944	메주익는마을 생기가득한 청국장/

	서상덕(보성)		된장/메주 외
16	손정희(홍성)	010-9880-1349	홍성고구마/ 감자/ 시금치
17	정영숙(보령)	010-4744-5225	구기자/ 말린구기자차
18	여수 부엌 정인숙(여수)	010-3997-5909	장흥 한창본 고대미쌀과 화성 금경 연 단호박으로 만든 수제 단호박 식 혜
19	하네뜨목장 장미향(포천)	010-2755-9066	하네뜨요거트/치즈/우유등
20	오영상(해남)	010-5636-5040	국내산바나나 발사믹식초외
21	최은영(고양)	010-8875-3699	무우차외
22	허니아씨 민경아(서울)	010-3474-3316	국내유일특허받은 꿀
23	현은주(남양주)	010-9027-8320	바비큐/ 로인햄/ 수제 소세지전문
24	농담맥주학교 권용인(홍천)	010-4465-3467	수제 맥주 생산 /시음 /수제 맥주 학교
25	보리보리쌀 유귀숙(서울)	010 3913 3436	친환경 누룽지 쌀눈이 반짝반짝! 스낵용 (5종) 현미·보리·귀리 토종가바·멸치새우 끓임용 (2종)보리현미찹쌀· 토종가바현미찹쌀.
26	생태미식연구소 남윤미(여주)	010-3534-1449	식생활 교육 및 교구:토종씨앗상자 외
27	차해리(황칠본가)	010-2624-7166	섬달천 9도,12도 황칠막걸리/ 옥수 수막걸리
28	김종애(충주)	010-5451-5928	오미로제 와인/ 증류주
29	최영미(서울)	010-8652-1223	슬로달팽이 매거진 잡지
30	유성경(수원)	010-7118-0034	황짱 인삼꿀차
31	홍순창(안동)	010-3882-6781	화개 제다 녹차
32	임영혜(서울)	010-2358-3989	마더 파이 수제 파이
33	송지은(경기양주)	010-6227-0145	꽃차 배우기 경기양주지부

34	시드언니네 컴퍼니 박정록(영주)	010-5082-8882	야생화꿀, 아카시아꿀, 벌화분 고춧가루, 들기름, 건고사리 지역 생산 농산물 원물 그대로 건조 해서 만든 생강차/우영차/도라지차 외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 언니네에서는 지역 소농가, 소상 공인 농산물 및 제품 판매를 위한 판로지원을 하고 있어요. 꿀 외에도 고춧가루, 들기름, 건고 사리 외 농산물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들을 '영주씨 네_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 매장'에서판매하고 있습니다.
35	경기 파주지부	010-8284-0634	토종씨앗 전시
36	청미래 민형기	031-684-6987	청미래 엄마의 밥상 무농약 통곡물 15곡
37	풀우유 - 주연섭 (문경)	070-4238-6716	논지엠오 우유, 요구르트외
38	전병덕(수원)	010-4425-4307	삼려원 황짱 인삼양갱 / 인삼정과
39	울릉지부사무국 장 이영실	010-9376-4317	울릉군에 생산되는 품목 건나물, 명 이나물장아찌 등 에 대해 문자를 주 시면 생산자 연락처를 연결해 주실 예정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자랑스러운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이 내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소멸위기의 종자 및 음식 유산을 지키는 맛의 방주 발굴 및 등재
- 슬로푸드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어머니인 땅" 워크숍
- 슬로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슬로푸드 축제 참가 및 개최
- 유전자 조작 식재료(GMO) 반대
-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키는 슬로피시 운동
- 조리로 농업과 건강, 식문화를 지키는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
- 콩 유전자원 보전과 자급 실현을 위한 "콩의 나라 대한민국" 캠페인
- 공장식 축산 육제품 대신, 적게 먹되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슬로미트" 운동
- 우리 차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생산자를 돕는 "차 마시는 사회" 캠페인
-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슬로푸드 집밥 리더" 양성
- 음식 독서, 공동 부엌, 토종씨앗 보전, 생산자 격려 등 지역별 지부 및 커뮤니티 육성

슬로푸드 회원이 되시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하는 외에도 160개국의 슬로푸드 회원들과 연대 안에서 지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슬로푸드 공동생산자가 되어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땅, 가족 농, 종자를 지킵니다. 또한 슬로푸드 지부나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벤트도 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1~12월 슬로푸드 후원자 (정기 후원 회비 납부자) 명단

(사)가배울(대표김정민)/전남강진, 푸른콩방주(대표김민수)/제주, (주)도담(대표이원영/슬로푸드친구들)/충북청주, (주)뜰과숲(대표관춘희/슬로푸드친구들)/서울강남, (주)물과산소(대표우병렬)경기김포, (주)쁘리마쥬(대표오진수/슬로푸드친구들)/경기안양, (주)생태미식연구소(대표남윤미)/경기여주, (주)선농생활(대표신동수)경기양평, (주)제주마미(대표김정옥)/제주, (주)초정(대표정인숙)/전남곡성, John Kenneth Lee/전남장흥, 팬앤팬출판사(대표김민경)/서울성북, NIINUMA CHIKA/서울마포, 강경갑/부산광역시, 강경석/제주, 강경아/서울용산, 강경우/전남고흥, 강구열/경북예천, 강금란/전북군산, 강능규/경기화성, 강대욱/경남거창, 강미경/충남논산, 강민규/울산광역시, 강범식/경기안양, 강병규/전북남원, 강석찬/경기화성, 강성일/제주, 강순아/서울서초, 강양숙/제주, 강영수/대구광역시, 강영주/충남서천, 강은미/전북김제, 강은주/경기양주, 강장원/경기안양, 강정미/충남서천, 강주남/제주, 강지윤/전북고창, 강창건/제주, 강혜련/충남예산, 행복빛는떡시루(대표강혜진)/전북군산, 강희숙/경기파주, 강희진/충남예산, 경소정/경기남양주, 경지현/서울강남, 고금희/경기화성, 고미애/전북완주, 고민주/충북청주, 고성광/경기고양, 고승희/서울마포, 고양찬우물농장/경기고양, 고양/경기화성, 고

영희/제주, 고영희/제주, 고옥희/경기파주, 고용준/제주, 고운/서울마포, 고은정/제주, 고은정/전북남원, 고인정/경기평택, 고재섭/경북영양, 고점석/전북부안, 고지현/서울용산, 고현미/경기남양주, 고현준/제주, 고헌선/전북전주, 고헌순/경기남양주, 공항숙/전남광양, 광경자/전남담양, 광민선/서울강남, 광여경/전남여수, 광주홍/경남김해, 광찬열/경기고양, 구본일/경기파주, 구영자/광주광역시, 구자운/충남예산, 국영주/강원홍천, 권미연/경기부천, 권성원/서울은평, 권연숙/경북울릉, 권영주/경남창원, 권오경/경기양평, 권오열/세종시, 권용덕/경기고양, 권용인/강원홍천, 권은민/서울종로, 권은숙/경북울릉, 권인옥/서울강북, 권재영/미지정, 권찬중/경북울릉, 권태훈/대전광역시, 권향숙/경기파주, 권혁현/서울서초, 권혜연/충남부여, 권화조/경북울릉, 규반/서울 중구, 금경연/경기화성, 금대연/경기화성, 기중서/제주, 김경란/서울도봉, 김경숙/전남장흥, 김경숙/서울은평, 김경아/경기부천, 김경자/전남담양, 김경희/서울성동, 김경희/충남예산, 김경희/서울성북, 김경희/경기의정부, 김관숙/전북완주, 김관영/전북군산, 김관호/충남서산, 김광옥/광주광역시, 김광태/경북고성, 김귀임/광주광역시, 김금옥/경기남양주, 김기남/전북부안, 김기라/전남광주, 김기열/서울영등포, 김나경/부산, 김나영/서울중랑, 김나현/경남하동, 김다솔/경기파주, 김대수/서울성북, 김덕일/경기평택, 김도원/제주, 김도윤/경북울릉, 김동관/전남고흥, 김동숙/경기파주, 김동우/경기오산, 김동자/경북울릉, 김동환/충남논산, 김명미/서울관악,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숙/경기용인, 김명애/경북울릉, 김명옥/전북전주, 김명희/서울노원,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충남홍성, 김미나/부산, 김미득/경남창원, 김미라/전남순천, 김미라/전남완도, 김미숙/서울마포, 김미숙/서울 강서, 김미영/경기파주, 김미진/광주광역시, 김미혜/경기양평, 김미희/경남하동, 김미희/전남여수, 김민영/경기남양주, 김민정/광주광역시, 김민호/경기 광주, 김민희/제주시, 김병기/서울서초, 김병수/경북울릉, 김보람/서울노원, 김복남/경북울진, 김복희/광주광역시, 김부미/서울서초, 김상권/경기화성, 김상기/경기파주, 김상범/전남무안, 김상희/경기파주, 김생기/서울구로, 김서원/경기파주, 김선관/전남여수, 김선란/전남순천, 김선유/서울동대문, 김선화/경북울릉, 김선희/전남무안, 김선희/부산광역시, 김성은/전북부안, 김성일/충북청주, 김성현/전남목포, 김성훈/경기평택, 김성희/서울서초, 김소연/경기평택, 김소행/전북고창, 김수남/전북고창, 김수미/경남고성, 김수미/경기의정부, 김수영/경기수원, 김수진/서울구로, 김수하/경남밀양, 김수현/경기화성, 김숙정/전북전주, 김순주/경북울릉, 김순향/전남여수, 김순화/경북울릉, 김승준/서울용산, 김승환/경북울릉, 김아윤/슬로청춘, 김여진/전북전주, 김연주/충남서산, 김연태/서울관악, 김영금/경기파주, 김영남/경북울릉, 김영란/충북제천, 김영란/전남신안, 김영림/서울관악, 김영림/서울 동작, 김영미/서울성북, 김영미/전북고창, 김영숙/충남예산, 김영숙/부산, 김영숙/전북고창, 김영순/경기파주, 김영식/세종, 김영신/전남완도, 김영애/경기양주, 김영옥/전남화순, 김영주/서울강남, 김영택/전북익산, 김영향/서울구로, 김영희/전남담양, 김예성/서울강남, 김옥분/충남홍성, 김옥분/경북울릉, 김옥선/서울송파, 김옥선/경북울릉, 김옥연/경남창원, 김옥용/경북울릉, 김완섭/경북안동, 김용수/전북고창, 김원봉/경기여주, 김원일/서울종로, 김원형/경기남양주, 김유나/서울용산구, 김유신/서울은평, 김윤미/경기남양주, 김윤석/전남여수, 김윤정/서울성북, 김윤주/경기양평, 김은경/전북군산, 김은규/전남강진, 김은성/전북고창, 김은숙/서울중구, 김은숙/경기양주, 김은아/경북울릉, 김

은영/경기의정부, 김은주/전남여수, 김은하(김규량)/광주광역시, 김은혜/경기양평, 김익현/경기의정부, 김인수/전남곡성, 김인숙/서울서초, 김인순/전북전주, 김인자/경기파주, 김자현/서울관악, 김재광/경기고양, 김정규/경기김포, 김정민/경기오산, 김정수/서울동작, 김정수/경기파주, 김정아/제주, 김정애/경북울릉, 김정애/부산해운대, 김정열/제주, 김정옥/경북울릉, 김정화/경기의정부, 김정화/경기양평, 김정희/전남여수, 김종덕/서울동작, 김종애/충북충주, 김종철/제주, 김종화/강원철원, 김주덕/제주, 김주연/전북부안, 김주혜/경기성남, 김주회/서울동대문, 김준/광주광역시, 김지영/경기안산, 김진만/대전광역시, 김진수/전남여수, 김진옥/광주광역시, 김진옥/경기화성, 김진주/전북전주, 김진태/전남고흥, 김찬주/경기시흥, 김채옥/서울동대문, 김채윤/경북예천, 김채윤/전북전주, 김추자/전남여수, 김춘교/경기부천, 김춘성/경기하남, 김충구/충남천안, 김태분/경북울릉, 김태양/경기여주, 김태용/전북전주, 김태철/경기성남, 김태훈/전북전주, 김하경/서울동작, 김하나/전남강진, 김학현/경기파주, 김행근/제주, 김현린/경북울릉, 김현곤/전북진안, 김현규/전북군산, 김현석/서울시중구, 김현숙/경기이천, 김현숙/경기김포, 김현숙/경기의정부, 김현순/서울은평, 김현영/전남장성, 김현옥/경북울릉, 김현옥/경기부천, 김형근/경기평택, 김형순/경기고양, 김형애/충남예산, 김혜경/전북남원, 김혜란/서울종로, 김혜숙/강원강릉, 김홍기/충남예산, 김희명/전북군산, 김희섭/경기하남, 김희순/전북군산(정담순대), 김희영/ 김희재/부산광역시, 꽃다비/전남나주, 나경희/전북고창, 나예주발효/경남거창, 나혜리/경기남양주, 남은주/경기안성, 남정희/경북울릉, 남창우/전남순천, 남한권/경북울릉, 노국환/경기양평, 노명희/경북상주, 노미경/경기여주, 노민영/서울종로, 노영도/경남창원, 농업법인 금오도섬마을방풍, 농업회사법인 농부생각(대표김동완)/충남아산, 느린세상영농조합법인(대표김갑남)/경북상주, 다정농원(대표심복남)/경북성주, 도덕현/전북고창, 때맞춰내린비 시우/경기고양, 라연화/경기고양, 라호채/전북무주, 류경옥/광주광역시, 류명주/광주광역시, 류정기/경기고양, 류춘자/경기고양, 르도혜/부산광역시, 마경희/경북울릉, 마행덕/충북청주, 문명숙/경북울릉, 문서정/경기수원, 문성희/경북청도, 문순자/경북울릉, 문오권/광주광역시, 문유숙/서울은평, 문재형/경기하남, 문종환/경북영양, 문주현/경남창원, 문지영/서울은평, 민경윤/경기용인, 민진옥/서울동대문, 바른식습관연구소(대표김아람)/경기광명, 바이오스/경기남양주, 박경숙/서울종로, 박경아/경기남양주, 박경하/충남예산, 박경희/경기파주, 박광철/전북전주, 박기호/경북울릉, 박남옥/전남여수, 박덕수/경북울릉, 박도희(박소연)/경기양평, 박동근/서울강남, 박동금/전북완주, 박동우/서울마포, 박래훈/경기화성, 박만희/광주광역시, 박명선/경기파주, 박미경/경남함양, 박미현/경기고양, 박민숙/광주광역시, 박민제/경기양평, 박상미/서울종로, 박상일/전남해남, 박서필/캄보디아, 박석희/서울동작, 박선영/경기고양, 박선흠/전남여수, 박성미/전남여수, 박성숙/독일, 박성자/경기평택, 박성춘/전남신안, 박성혜/경기광주, 박세정/서울양천, 박소현/경기성남, 박수진/전북부안, 박수진/경북울릉, 박순덕/경북울릉, 박애경/경기양평, 박연주/경기파주, 박영미/서울종로, 박영수/제주, 박영심/전북군산, 박영애/강원홍천, 박영재/경기수원, 박영희/제주, 박용수/경북울릉, 박은경/경기평택, 박은서/충남예산, 박은숙/전남나주, 박이현/전남고흥, 박인숙/전남담양, 박일두/전북전주, 박재원/서울강남, 박재현/, 박정록/경기남양주, 박정실/서울용산, 박정애/경북울릉, 박정옥/경기안양, 박정희/서울은평, 박종숙/경기이천,

박종일/서울강서, 박진숙/경기고양, 박찬영/서울관악, 박철민/경기용인, 박춘희/전남여수, 박한주, 박혜숙/전남순천, 박홍균/전남신안, 박희옥/서울종로, 반기민/충북청주, 배경선/경기안양, 배경연/경기파주, 배덕희/전북진안, 배동국/대구광역시, 배연하/전남고흥, 배영혜/경기화성, 배인숙/경기성남, 배재희/전남영암, 배정숙/충남논산, 백관실/경남진주, 백광빈/경기평택, 백수환/광주광역시, 백혜숙/서울송파, 변경숙/서울송파, 변 산노을/경기양평, 변옥분/경북울릉, 변은숙/제주, 변인화/서울영등포, 변창신/제주, 봉밀가평양냉면/서울강남, 부명미/경기파주, 부정숙/제주, 사랑의 손힐링리더스/광주광역시, 서동현/일산고양, 서미향/서울관악, 서석림/경기양주, 서은경/충남예산, 서종효/대구광역시, 서주희/전북군산, 서해용/충북청주, 서형숙/서울성북, 서희주/경기파주, 선재스님/경기용인, 선정우/경기성남, 성길현/경기고양, 성명순/경기수원, 성미선/경기남양주, 성민용/충북청주, 성선희/서울강남, 성세아/경기사흥, 성용호/서울서초, 성점숙/전남함평, 성정민/경기성남, 성현주/경기옥천, 소인경/경남통영, 소혜순/경기남양주, 손금숙/서울광진, 손덕식/전북정읍, 손영숙/강원철원, 손영옥/서울서초, 손영자/전남화순, 손용원/경북울진, 손정숙/경북울릉, 손정희/충남홍성, 손철수/서울성동, 손혜연/서울송파, 손화자/경북울릉, 송관용/서울서초, 송기희/광주광역시, 송동흙/서울서대문, 송미경/경북울릉, 송미경/경기성남, 송미령/전북전주, 송미화/경북울릉, 송서윤/대전광역시, 송수연/경북안동, 송영희/경기양평, 송재향/전남여수, 송정선/경기파주, 송정숙/경기파주, 송정은/서울강서, 송주희/경기광주, 송지은/경기양주, 송진선/부산직할시, 송창재/제주, 송철식/경남고성, 송창락/강원도춘천, 송태경/전북진안, 송혜민/경기남양주, 시드컴퍼니언니네(대표박정록)/경북영주, 시미란/경기광주, 신경남/전남고흥, 신동수/경기양평, 신동환/서울영등포, 신미경/전남여수, 신미경/경기양평, 신미정/전북순창, 신상천/충남서천, 신서하/서울강남, 신소영/서울관악, 신수경/서울동대문, 신영규/경남김해, 신용조/충남홍성, 신유리/서울강북, 신은희/경북대구, 신일현/경기포천, 신종암/전남여수, 신주희/충남홍성, 신지혜/경기용인, 신진경/전북군산, 신현숙/경기고양, 신형식/경기남양주, 신혜경/경기부천, 신희곤/경기파주, 심상옥/서울종로, 심재경/전남완도, 심은/경기구리, 심찬/서울강남, 안기영/경기양주, 안덕준/서울은평, 안란/광주광역시, 안민재/서울영등포, 안병권/전북김제, 안성민/전북고창, 안세희/경기남양주, 안수복/경북포항, 안수영/경기양평, 안승문/경기고양, 안승화/서울강남, 안완배/경기양평, 안완식/경기수원, 안윤자/전북전주, 안일국/서울은평, 안정순/경기고양, 안정자/경남창원, 안종욱/경북울릉, 안종운/서울서초, 안창호/서울강북, 안현숙/ 경기파주, 안혜경/전남순천, 양말년/경북울릉, 양문실/제주, 양미순/경북예천, 양미자/경기남양주, 양성오/경남창원, 양소영/전남여수, 양옥경/전북전주, 양용진/제주, 양인승/경기남양주, 양인자/경기광명, 양정미/경북울릉, 양정철/제주, 양종천/강원춘천, 양향숙/전북완주, 양혜숙/제주, 양희은/경기의정부, 양희정/서울송파, 어프로젝트(대표천재박)/경기파주, 언리밋테이블(대표김해영)/서울강서, 여수미미협동조합/전남여수, 엄희순/대구광역시, 여애숙/경북울릉, 오동엽/경북청도, 오미경/전북전주, 오석환/전북익산, 오성표/전남고흥, 오세훈/경기안양, 오승호/경기남양주, 오승희/전북완주, 오연숙/제주, 오영상/전남여수, 오용균/서울송파, 오용준/서울송파, 오원희/인천강화, 오유경/광주광역시, 오인숙/제주, 오정희/전남여수, 오태숙/경북울릉, 올바른편식/광주광역시, 우석영/경기고양, 우선화/경기파주, 우영선/미지정,

우태영/경남거창, 우호창/경기가평, 원승현/강원영월, 유경/전북김제, 유경숙/서울노원, 유경순/서울강북, 유계숙/광주광역시, 유귀숙/서울동작, 유기상/전북고창, 유미호/서울구로, 유선금/서울서대문구, 유성경/경기수원, 유성훈/전북부안, 유수현/경기남양주, 유신정/서울서초, 유영아/전남고흥, 유은의/경기김포, 유은희/경기파주, 유일순/충남서산, 유재성/강원영월, 유정희/경북포항(고천마실대표), 유종철/경기수원, 유춘자/경기수원, 유혜선/충북청주, 유홍림/프랑스, 육주희/서울관악, 윤가비채/광주광역시, 윤경림/서울관악, 윤경숙/충남서산, 윤광미/경기고양, 윤광희/경기광명, 윤대근/전남나주, 윤대식/전남강진, 윤매숙/경북울릉, 윤병구/전남함평, 윤상미/서울서대문, 윤석진/경기포천, 윤성호/경남창원, 윤성희/충북청주, 윤아영(레스토랑오와이)/서울강남, 윤영석/대전광역시, 윤영실레시피/경기파주, 윤영주/경북울릉, 윤영철/경북울릉, 윤유경/서울동작, 윤일/전북전주, 윤재영/서울강남, 윤종민/전남여수, 윤하영/대전광역시, 유형순/경기평택, 이강근/경기파주, 이강백/경기고양, 이강삼/경남하동, 이강식/경기화성, 이경숙/경기양주, 이경숙/경기파주, 이경애/경북울릉, 이경우/경기양평, 이경이/경기양평, 이경임/전남해남, 이경자/충남홍성, 이경태/경북울릉, 이경희/경북울릉, 이계철/전북전주, 이광빈/제주, 이광영/경기파주, 이광진/경기용인, 이광진(일산애)/경기고양, 이귀순/경기하남, 이귀임/전남영광, 이귀조/경북울릉, 이규희/경기오산, 이근왕/경남하동, 이근혜/서울종로, 이금선/경북울릉, 이기동/서울송파, 이기호/전북부안, 이길순/광주광역시, 이나금/경기파주, 이남숙/경기파주, 이다감/경기포천, 이대건/전북고창, 이덕주/경남하동, 이덕준/경북울릉, 이도경/경기파주, 이동건/경기수원, 이동선/경기용인, 이동일/경기용인, 이두열/경기김포, 이명/서울강남, 이명숙/대전광역시, 이명숙/경북울릉, 이명주/경기김포, 이명희/서울용산, 이문봉/경기안양, 이미덕/강원횡성, 이미우/경기양주, 이미정/전북군산, 이민/제주, 이민영/경기양주, 이민우/충남보령, 이민일/경기파주, 이민형/경기고양, 이보은/서울구로, 이보향/서울도봉, 이보희/경기과천, 이봉자/경북울릉, 이부경/경기남양주, 이빈파/서울성북, 이상관/경기광주, 이상근/경기양평, 이상배/경기화성, 이상원/경기남양주, 이상익/서울종로, 이상행/서울용산, 이상헌/경북울릉, 이상훈/경기평택, 이상희/제주, 이상희/경남통영, 이석영/경기수원, 이선심/광주광역시, 이선진/인천광역시, 이성철/부산광역시, 이소연/경기수원, 이수경/서울강동, 이수연/경기용인, 이수진/서울성북, 이숙연/서울동작, 이숙희/경남창원, 이순규/경기남양주, 이순득/경기용인, 이순애/경북울릉, 이순원/서울서초, 이순익/경기평택, 이순자/경북울릉, 이승길/전남완도, 이승숙/충남논산, 이승창/전남완도, 이승현/서울종로, 이승희/전남해남, 이승희/경기평택, 이연례/전남순천, 이연수/서울송파, 이영성/서울종로, 이영숙/충남예산, 이영숙/충북청주, 이영실/경북울릉, 이영희/경기수원, 이옥순/서울양천, 이옥희/경북경주, 이용우/인천광역시, 이용이/전북군산, 이우숙/경기부천, 이원로/경기성남, 이원영/경기하남, 이원자/경기여주, 이윤선/제주,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혜/충남공주, 이음/대구광역시, 이음연구소/충남천안, 이자영/경기양평, 이재덕/서울강남, 이재선/경기양주, 이재영/충남계룡, 이재용/경기화성, 이재현/충북보은, 이재훈/대구광역시, 이정숙/충남예산, 이정숙/전북정읍, 이정숙/대전광역시, 이정아/제주, 이정아/경남하동, 이정아/광주광역시, 이정욱/서울동작, 이정직/미지정, 이정호/강원원주, 이종진/전북전주, 이주니/경기수원, 이주연/서울용산, 이주해/전북임실, 이준섭/제주, 이준호/전북고창, 이지순/경기양평, 이지

영/제주, 이지현/경기남양주, 이지형/경북경산, 이진숙/경기파주, 이진영/전북전주, 이진오/경북울릉, 이진형/경남진주, 이진희/서울동작, 이진희/서울강북, 이창권/경기화성, 이창희/경기양평, 이춘자/경북울릉, 이현/경북경산, 이현숙/충북청주, 이현숙/서울서대문, 이현종/경기고양, 이해정/경북포항, 이호진/경기김포, 이희운/전남장흥, 인경숙/광주광역시, 임명검/충남보령, 임미선/경기양평, 임상채/경기파주, 임선자/경북울릉, 임시현/경남창원, 임연숙/전남장흥, 임영수/경기고양, 임영숙/전북군산, 임영혜/충북영동, 임인환/경기양평, 임장욱/전북정읍, 임정남/전남여수, 임종우/경남하동, 임지우/경기파주, 임창덕/경기구리, 임태인/광주광역시, 임헌문/경북봉화, 임현/경기과천, 임현주/전남완도, 임현진/서울영등포, 임희연/광주광역시, 장경순/서울중구, 장경식/서울마포, 장내순/전남장흥, 장대석/경기성남, 장명숙(신순규)/실미원, 장명아/광주광역시, 장문희/경기고양, 장미향/경기포천, 장수찬/경기화성, 장승영/경기광주, 장승희/경기사흥, 장영숙/경기파주, 장영주/서울은평, 장영춘/서울성북, 장유성/부산광역시, 장은숙/충남공주, 장은숙/경남양산, 장인이/경기고양, 장점순/전북임실, 장주연/경기고양, 장중연/전남목포, 장지영/전남무안, 장진호/서울마포, 장하늬/서울마포, 장한/인천강화, 장현남/서울동대문, 장현순/경기파주, 장현예/경기남양주, 전계운/전북고창, 전미경/경기남양주, 전미옥/경기양주, 전민석/경기남양주, 전병덕/경기수원, 전병성/경기파주, 전성희/경북안동, 전송자/경기파주, 전옥자/경기화성, 전은순/경기파주, 전인옥/경북구미, 전효원/대구광역시, 정/전남무안, 정갑순/경기광명, 정경희/경기이천, 정관스님/전남장성, 정광숙/경기양주, 정규화/경남진주, 정금자/경기파주, 정금철/전북부안, 정남묘/서울강남, 정대휘/경북울릉, 정명성/전북정읍, 정미선/서울서대문, 정미영/경기파주, 정병남/전남고흥, 정병수/광주광역시, 정봉희/서울용산, 정상신/이탈리아, 정상택/광주광역시, 정송임/전남장흥, 정순덕/경기파주, 정순옥/경기양주, 정시현/경기용인, 정연숙/경기화성, 정연주/경기양평, 정영숙/경기양평, 정영호/전남무안, 정영희/경남창녕, 정용호/경북울릉, 정용희/경기고양, 정운교/충북음성, 정은상/경남창원, 정은정/전북부안, 정은하/경기남양주, 정일심/경기양주, 정점숙/경기남양주, 정정기/경기파주, 정정연/경북울릉, 정정하/서울종로, 정제민/충남예산, 정진순/전북고창, 정진영/제주, 정진화/서울은평, 정혁훈/서울송파, 정현숙/경기성남, 정현자/전남여수, 정현주/전남여수, 정현진/경북울진, 정현창/경기양평, 정혜경/경기고양, 정혜윤/인천광역시, 정호진(자르디미농)/경북구미, 정효화/전남화순, 정희정/전남무안, 조경신/전북전주, 조남희/경기성남, 조분호/경남창원, 조소연/경기양평, 조순영/전남광양, 조연원/충남예산, 조영례/전남신안, 조영현/전남장흥, 조완석/경기용인, 조용란/경기파주, 조원실/경기고양, 조용심/전북익산, 조은주/경기고양, 조은진/전북정읍, 조은희/경북경주, 조이스/경북울릉, 조정환/경기화성, 조중기/강원철원, 조창범/제주, 조철/전북진안, 조태경/서울종로, 조한용/부산광역시, 조향순/전남순천, 조혜원/서울서대문, 조희경/경기파주, 주권기/광주광역시, 주귀연/인천광역시, 주대중/전북군산, 주미란/서울도봉, (주)서스테이블/서울동작, 주연섭/경북문경, 주영하/경기성남, 주은옥/전남여수, 주형로/충안홍성, 주형미/경기부천, 주희진/광주광역시, 지윤진(피코서울)/서울사직, 지은주/서울서초, 진미령/경남창원, 진인희/미지정, 진태민/제주, 진희승/경기고양, 차나무뱅크/경기용인, 차명옥/전북전주, 차미경/광주광역시, 차시영/전남장흥, 차정단/전북진안, 차주진/경기남양주, 차해리/전남여수, 채점석/제주, 채지애/

제주, 천병한/경남진주, 천정자/전남장흥, 천지연/전남순천, 천호균/경기파주, 최광일/경기파주, 최근태/충북옥천, 최낙전/경기양평, 최돈익/서울강남, 최득수/충북단양, 최말희/경북울릉, 최미경/경기안양, 최미자/서울노원, 최선희/경기동두천, 최성희/서울은평, 최송아/경기고양, 최숙자/전남고흥, 최승철/경기안양, 최식림/경남산청, 최양숙/경기파주, 최영미/서울성북, 최영숙/경남창원, 최영숙/경북울릉, 최영은/서울노원, 최용범/전남구례, 최윤경/서울종랑, 최윤수/경기여주, 최윤희/서울영등포, 최은숙/경기김포, 최은순/광주광역시, 최은영/경기고양, 최장희/대전광역시, 최정민/경북경산, 최정분/경기파주, 최정희/경기양주, 최종현/경기수원, 최종호/경기양평, 최준표/경기수원, 최준호/서울용산, 최지영/서울강남, 최철/경기연천, 최춘경/전북전주, 최춘식/충북청원, 최학순/충북청주, 최후경/전남여수, 최희철/경기수원, 주소정/경기수원, 추승민/서울관악, 카펜트리(진접)/슬로푸드친구들(대표 유승현), 하늘농가/슬로푸드친구들(고화순)/경기남양주, 하완기/경남거창, 하진석/경기고양, 한귀숙/경북울릉, 한기남/전남구례, 한대수/경남거창, 한도연/전남담양, 한명구/서울중구, 한복려/서울종로, 한상준/경북예천, 한성천/경남하동, 한소희/전남여수, 한열영농조합법인/슬로푸드친구들(대표김원봉)/경기여주, 한영수/경기양평, 한외자/경북울릉, 한우석/슬로청춘, 한은희/경기남양주, 한정심/전북군산, 한주희/경기파주, 한창본/전남장흥, 한태림/전남순천, 한해광/전남여수, 한홍경/부산광역시, 허운/경남산청, 허경희/서울강남, 허기순/경기가평, 허니아씨/서울강북, 허선혜/경기파주, 허순연/경북울릉, 허정희/경기파주, 허태원/전남여수, 허향순/제주, 허혜윤/경기양주, 현길아/제주, 현은주/경기남양주, 현종영/서울강남, 현혜인/경기수원, 홍경량/제주, 홍경옥/경기양주, 홍광표/경기화성, 홍미라/경기하남, 홍선경/전북고창, 홍선희/서울성북, 홍순미/서울은평, 현인농원(대표홍승갑)/경기파주, 홍양현/전남나주, 홍여신/전남강진, 홍은화/경기수원, 홍정아/부산광역시, 홍천기/서울영등포, 홍혜영/대전광역시, 황보순자/경기이천, 황선진/전북남원, 황중환/전남나주, 황주연/서울관악, 황진웅/충남공주, 황현화/전북군산, 황효숙/경북울릉, 효덕목장(대표이선애)/충남천안, (이상1,077명)